



시민과 함께 2019 / 8월 1주차

■ 연구원 소식

○ 제4회 독립운동 국제영화제 개최 안내(8월 17일)

2016년부터 진행되어 온 국제독립운동영화제가 4회를 맞이했습니다. 올해는 3·1만세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뜻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오는 8월 17일(토) 13시부터 전주 중부비전센터에서 열리는 제4회 독립운동 국제영화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가. 일시: 2019. 8. 17.(토) 13시~20시
- 나. 장소: 전주 중부비전센터 5층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3길 34)
- 다. 대상: 시민 누구나
- 라. 주최 및 주관
 - 1) 주최: 항일영상역사재단
 - 2) 주관: 광복회 전북지부, (사)한국고전문화연구원
 - 3) 협력기관: 전주대학교 K-History 특성화사업단

마. 영화제 세부 일정

| 날짜 | 시간 | 일정 |
|-----------|---------------|--|
| 8월 17일(토) | 13:00 ~ 15:20 | - 개회식 ① 개회사: 이강안(한국고전문화연구원장) - <대호> 상영 |
| | 15:20 ~ 15:30 | - 휴식시간 |
| | 15:30 ~ 17:20 | - <사울의 아들> 상영 |
| | 17:20 ~ 17:30 | - 휴식시간 |
| | 17:30 ~ 19:10 | - <병정님> 상영 |
| | 19:20 ~ 20:30 | - 저녁식사 |

○ 연구원 회원의 날 및 개원 기념행사 안내 (8월 31일 ~ 9월 1일)



전주전통문화연수원 야경

2006년 9월 2일 공식적으로 대문을 열었던 우리 연구원이 어느덧 열세 살이 되었습니다. 오는 **"8월 31일(土)~9월 1일(日) <1박 2일>"**에 걸쳐 회원의 날과 개원 13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회원의 날은 장소는 **"전주전통문화연수원"**입니다.

우리 연구원 회원인 김순석 박사가 원장으로 있는 전주전통문화연수원은 전주 한옥마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문화자원을 이어 받은 전주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곳인 전주전통문화연수원에서 열리는 개원 13주년 회원의 날은 전통문화와 역사를 찾아보는 교양 강좌와 향음주례(鄉飲酒禮) 등 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립민속국악원 왕기석 원장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도 준비되어 있으니 부디 함께하시어 경향각지의 좋은 기운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개원 기념 회원의 날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추후 지속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연구원에서 참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참석을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구원 유선전화 (063-286-3005)나 사무국장(010-6275-0409)에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 역사 속의 오늘

ながはる う로 살다 우장춘으로 돌아가다 (1959년 8월 10일)

그는 망명객인 조선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나가하루 우란 이름으로 1898년 도쿄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을미사변 당시 훈련대 제2대대장이었는데 명성황후 시해사건에 가담했다가 일본으로 망명해 사카이 나카와 혼인했다. 그러나 아들 나가하루가 태어난 지 5년 만에 조선인 자객 고영근에게 암살당한다.

아버지가 죽은 후 그는 고아원에서 지낼 정도로 어려운 일상을 보내야 했다. 가정 형편이 좀 나아지자 히로시마에서 중학교를 마친 후 박영효의 주선으로 조선총독부에서 학비를 지원받아 도쿄제국대학 농학부에 진학하게 된다.

그는 1916년 신입생 때, 조선인 도지사가 방일해 조선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친일연설을 벌이자 와세다대학에 재학중이던 조선인 유학생 김철수(조선공산당 3차 책임비서, 2005년 건국훈장 독립장 추서)가 강사에게 항의하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게 된다. 이후 김철수와 친분을 나누며 "아버지 우범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조선의 독립과 조국을 위해 배운대로 봉사해야 되고 조선인의 성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말을 평생 잊지 않고 지냈다고 전해진다.

1919년에 도쿄제국대학 농학과를 졸업한 후 농림성 산하 연구소에 취직하여 나팔꽃의 유전에 대해 연구했다. 1924년에는 가정교사를 했던 인연으로 일본인 와타나베 코하루와 결혼했는데 코하루 집안에서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자 아내 코하루는 친정과 의절하기에 이르렀다. 그로부터 3년 후에는 망명 조선인을 지원하는 일본인의 양자가 되어 스나가 나가하루(須永長春)라는 이름을 얻었고 자녀들도 일본인으로 키우기로 하여 스나가 성을 사용했으나, 본인은 계속 우씨 성을 사용했다.

그는 1935년 "배추속(Brassica) 식물에 관한 게놈 분석"이라는 논문을 통해 '종의 합성' 이론을 제시했다. 배추와 양배추의 교잡을 통해 이미 존재하는 유채를 실험적으로 만들고, 그 과정을 유전학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종간 잡종과 종의 합성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음을 밝혔다. 이 이론으로 인해 '종의 분화는 자연선택의 결과이다.' 였던 다윈의 진화론에 맞서는 이론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1936년 도쿄제국대학에서 농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나 연구업적과 관련 없이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끊임없는 차별을 당한다. 한편 광복 후 한국의 식량사정은 형언하기 어려운 상황였고 우량종자의 개발과 보급이 너무나도 필요한 상황이었다. 성금모금까지 진행하며 그를 귀국시키기 위해 애썼는데 반면 일본은 그의 연구 성과가 한국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으려 했다.

그는 결국 1950년 3월 "지금까지 어머니의 나라 일본을 위해 노력했다면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나라 한국에 뼈를 묻을 것을 약속한다"는 귀국 성명을 발표하며 한국에 정착한다. 곧바로 부산에 자리한 한국종업과학연구소 초대 소장으로 취임한 그는 귀국을 위해 한국에서 모아진 성금을 일본에 남은 가족에게 전해주지 않고 실험도구와 종자 구입비로 모두 사용했다.

1951년 우장춘 박사는 채소 종자를 생산하기 알맞은 땅을 찾아 제주도를 방문했다. 제주도는 기후가 온화하고 장마가 빨라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시기가 겹치니 좋은 종자를 생산하기 어려웠다. 대신 감귤 재배에는 적당했다. 이후 우장춘 박사의 권유로 제주도의 농업관계자와 농민에게 감귤 재배를 적극 권장했고, 제주도는 우리나라 최고의 감귤 생산지가 됐다.

1950년대까지 영양분이 떨어지고 맛도 부족했던 김치의 원료 무와 배추를 맛 좋고 병에 강한 배추와 무 품종으로 개량하는데 성공했으며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됐던 강원도 감자의 품종을 개량해 세계적으로 맛 좋고 튼튼한 강원도 감자도 생산했다. 하지만 1959년 5월 원예시험장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마친 그는 병원으로 직행해야 했다. 평소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아 '십이지장 궤양'이란 진단을 받은 것이다.

3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병세가 악화되던 순간에도 그는 "벼를 직접 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제자들이 동래 한국농업과학연구소에서 가져온 벼가 손에 쥐어졌다. 그는 벼를 손에 쥔 채 "이 벼! 끝을 보지 못하고 내가 죽어야 하다니..."를 남기고 숨을 놓았다.

그의 연구 성과와 달리 반쪽발이라며 무시했던 한국은 그가 숨을 놓기 3일 전에야 훈장을 추서했고 그가 죽은 후 흉상을 세우고 기념관을 만들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에 가면 "우장춘로"가 있다.

1959년 8월 10일 나가하루 우로 살다 우장춘으로 숨을 놓은 이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의 식탁이 이만큼 풍성할 수 있게 되었다.

■ 천년 암자에 오르다

누구나 함께하는 설봉산 영월암, 첫 번째 이야기 - 호암계곡과 설봉산성

유영봉(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호암약수터를 지나 산성까지는 작은 고개를 서너 개쯤 오르내려야한다. 4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짧은 거리지만, 숲을 뚫고 걷는 기쁨은 크다. 분명 이 숲길이 유달리 아름다워 서만은 아니다. 호암계곡의 숲은 도심과 아주 가깝다. 주차장에서 내려 몇 걸음만 내딛으면 닿는 곳이니,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자연과 동화될 수 있는 친근하고 반가운 숲이다. 이렇게 도심 가까운 곳에 천년 암자를 잉태한 숲이 있다는 사실은 이천 시민들을 위한 축복이다. 아니, 편애에 가깝다고 해야 할까?

회색빛 도시 안에서 딱딱하고 힘든 일상을 보내야 하는 우리는 이따금 숲길을 걸어야 한다. 찌들 대로 찌든 마음의 때를 숲 속의 바람결에 훌훌 털어 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자신의 마음을 꺼내 들고 진지하게 들여다보아야 한다. 설봉산에서는 영월암으로 향하는 숲길이 이런 숙연한 분위기를 조성해주므로 더없이 고맙고 행복한 일이다. 다비드르 브르통은『걷기 예찬』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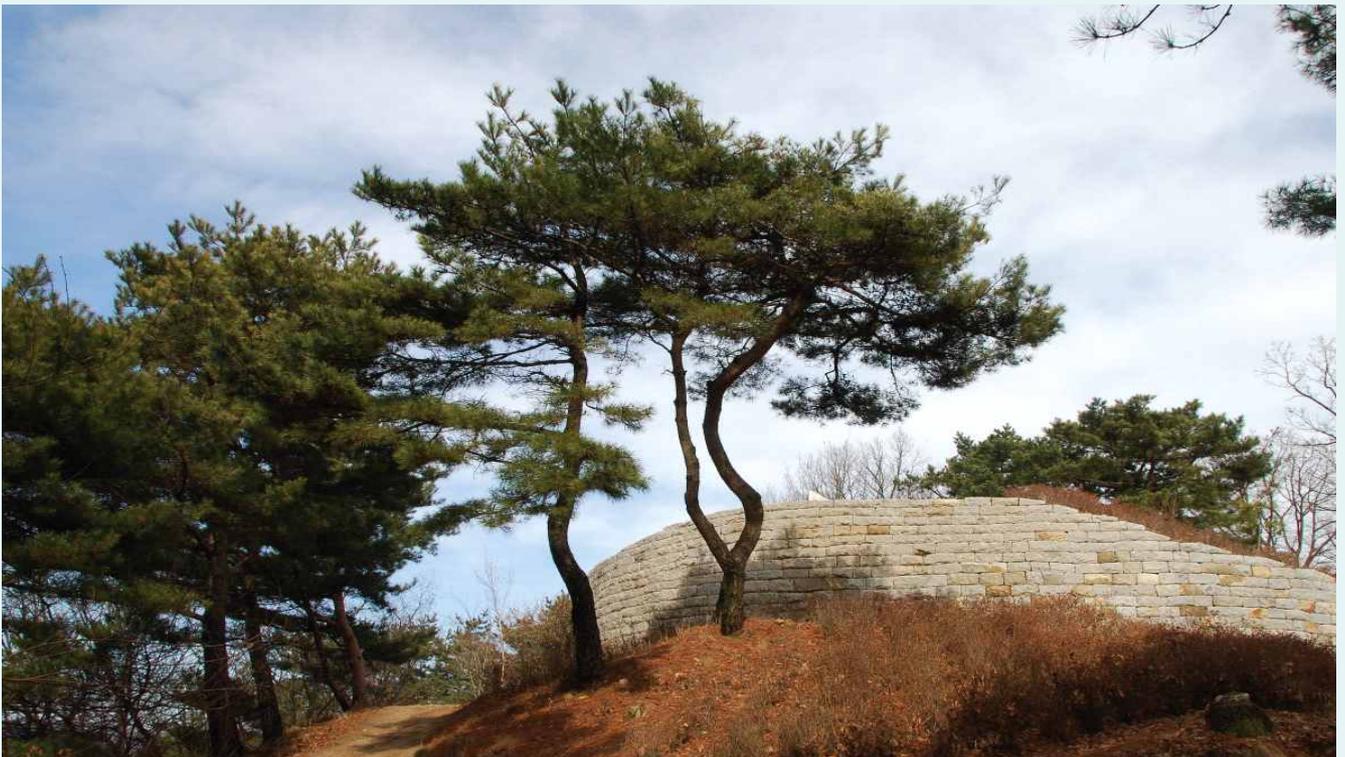
걷기는 자신을 세계로 열어 놓는 것이다. 발로, 다리로, 몸으로 걸으면서 인간은 자신의 실존에 대한 감정을 되찾는다. 발로 걸어가는 인간은 모든 감각기관의 모공을 활짝 열어 주는 능동적 형상의 명상으로 빠져든다. 그 명상에서 돌아올 때면 가끔 사람이 달라져서 당장의 삶을 지배하는 다급한 일에 매달리기보다는 시간을 그윽하게 즐기는 경향을 보인다. 걷는다는 것은 잠시 동안, 혹은 오솔길에 몸을 맡기고 걷는다고 해서 무질서한 세상이 지워주는 늘어만 가는 임무들을 변제받지는 못하지만, 그 덕분에 숨을 가다듬고 전신의 감각들을 예리하게 갈아 호기심을 새로이 할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사람들이 걷기에는 숲길이 좋다. 그것도 풀과 나무가 무성하게 자란 푸른 숲이 가장 좋다. 숲길을 걷는 일은 자연이 자아내는 아름다운 시 가운데로 들어가는 일이다. 그 순결한 시어 속에서 우리는 저절로 명상가가 된다. 숲길을 걷는 일은 자연이 펼쳐내는 몽환적인 그림 가운데로 들어가는 일이다.

곱디고운 빛의 향연 속에서 우리는 저절로 순례자가 된다. 숲길을 걷는 일은 자연이 풀어내는 저릿한 선율 속으로 빨려들어 가는 일이다. 그 안에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수행자가 된다. 호암계곡은 언제나 맑은 물이 졸졸 흐르고, 산새가 우짖는 산길이다. 메말랐던 가슴에 시나브로 물기가 밴다. 마음이 포근해지고 기분 또한 아늑해진다.

설봉산성은 관고리성지官庫里城址또는 무안산성이라고 불린다. 산꼭대기에 테뫼식으로 쌓은 석성인데, 1,079m에 달하는 길이다. 안내판에 따르면, 삼국 시대의 성벽 가운데 비교적 큰 모습으로, 발굴 결과 백제의 토기가 다수 출토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백제 최초의 석성일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넙따란 이천 들녘을 사방에 끼고 있는 설봉산성은 한강 유역으로 진격하려는 신라와 이를 막고자 했던 백제 혹은 고구려가 쟁패를 벌인 전략적 요충지로 미루어진다. 김유신 장군이 삼국통일을 위한 작전을 이곳에서 세웠다는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 오기도 한다. 산성 바로 위쪽에서 '칼바위'가 눈길을 끈다. 산성 안에서 가장 높고 전망이 좋아 일찍이 남장대南將臺가 설치되었던 자리와 멀지 않다. 봉수대烽燧臺의 자취도 한켠에 남았다.



설봉산성 관고리성지 또는 무안산성이라고 불리는 테뫼식 석성으로 1,079m에 달한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설봉산은 몸집이 작아도 기세가 넘치는 산이다. 수려한 정기가 끊임 없이 뿜어져 나오는 산이기에, 능선을 따라야무진 바위들이 즐지어 박혔다. 언제나 푸름을 자랑하는 소나무들은 설봉산의 당찬 기상을 눈으로 보여 준다. 이천 사람들의 사내답고 호쾌한 기질이 설봉산에서 비롯되었을까? 그래서 예로부터 '이천에 가서 주먹 자랑하지 마라.'란 말이 생겨났는지도 모른다.

설봉산에 박힌 세 자루의 칼 역시 문文보다는 무武를 내비춘다. 서슬 푸른 이 칼들은 대장군을 위한 장검이다. 이 칼바위가 이천의 자랑인 서희徐熙장군을 먼저 낳았나 보다. 남은 두 자루의 칼은 자신을 뽑아 들 대장군 두 사람의 새로운 탄생을 근엄하게 예고한다.

서희徐熙, 942~998 장군의 본관은 이곳 이천이다. 자는 염윤廉允이고, 아버지는 내의령內議令을 지낸 필弼이다. 960년(광종11) 과거에 급제한 뒤 광평원외랑廣評員外郎을 거쳐 내의시랑內議侍郎이 되었다. 972년에는 송宋나라에 사신으로 파견되어, 10여 년 동안 단절되어 있던 양국 외교관계의 재개에 힘을 기울여 송나라의 태조太祖에게 검교 병부상서檢校兵部尙書벼슬을 받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

993년이다. 고려의 북진정책과 친송외교에 불안을 느낀 거란은 동경유수東京留守소손녕蕭遜寧으로 하여금 고려를 침략토록 하였다. 조정은 이미 여진을 통해 거란의 침공 계획을 알았지만,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었다. 10월이 되자, 나라에서는 비로소 전국에 영을 내려 병사를 동원했다. 당시 서희는 지금의 평안북도 지역에서 방어의 임무를 맡았다.

80만 대군으로 봉산군蓬山郡을 빼앗은 거란은 항복하라는 위협을 되풀이했다. 조정에서는 항복하자는 의견과 서경西京이북의 땅을 떼어 주고 화의하자는 할지론割地論이 일어났다. 이에 서희는 거란의 출병 목적이 영토 확장에 있지 않음을 간파하고, 거란과의 담판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이때 소손녕은 청천강 남쪽의 안용진을 공격하다가 중랑장 대도수에게 패하게 되자, 어쩔 수 없이 고려와의 담판에 응하였다. 거란 진영에 도착한 서희는 신하의 예를 갖추어 뜰에서 절하라는 소손녕의 무례한 요구를 단호히 물리쳤다. 그리고 대등한 예로마주하자는 자신의 의견을 끝내 관철시켰다. 마주 앉은 소손녕은 침략의 이유를 두 가지로 들었다.

“첫째, 고려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는데도, 거란이 소유하고 있는 고구려 땅을 잠식하고 있다. 둘째, 거란과 땅을 접하고 있으면서도, 바다 건너의 송나라를 섬기고 있다. 이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는 땅을 떼어 바친 다음 조빙朝聘을 해야만 고려는 무사할 것이라고 위협을 가했다. 이에 서희가 반박하였다.

“우리나라는 고구려의 옛 터전을 뒤이었기에, 국호를 고려라 하고 평양을 다섯 도읍의 하나로 삼았다. 만일 경계로 논한다면, 요나라의 동경東京도 우리 경내境內에 있는 셈이니 어찌 잠식이라 할 수 있겠는가? 또 압록강 안팎도 우리 경내인데, 지금은 여진이 그곳에 살면서 완악하고 간사한 짓을 자행하고 있다. 그래서 도로가 막혀 통행이 어렵기가 바다를 건너는 것보다 심하다. 조빙을 행하지 못한 것은 여진 때문이다. 여진을 쫓아낸 다음 우리의 옛 땅을 되찾아 성을 쌓고 도로를 통하게 하면, 감히 조빙을 행하지 않겠는가?”

이는 우선 고려의 북진정책이 역사적으로 타당함을 밝힌 내용이었다. 그러면서 고려와 거란의 외교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 두 나라 사이에 끼어 있는 여진족을 함께 토벌하자는 선결 조건을 내세운 것이었다. 소손녕은 논리가 정연한 서희의 주장을 크게 인정하고, 곧바로 군사를 돌이켰다. 뒤이어 고려가 압록강 동쪽 280리 땅을 개척하는 데 동의하는 서신을 보내왔다.

평장사가 된 서희는 994년부터 3년간 군사를 이끌고 압록강 동쪽의 여진족을 몰아냈으며, 강동의 6주에 성을 쌓아 우리의 옛 땅을 회복하였다. 빛나는 외교의 승리이자, 북방정책의 알찬 실현이었다. 그 후 서희는 태보太保와 내사령內史令의 최고 요직에 올랐다. 1027년(현종18)에는 성종의 묘정에 배향되었다. 시호는 장위공章威公이다. 설봉산 여래계곡의 초입에는 서희 장군을 기리기 위한 동상이 최근에 조성되었다.

야트막한 설봉산 능선에는 편안한 오솔길이 펼쳐진다. 연자봉과 서희봉을 차례로 지나야, 정상인 희망봉이 나온다. 연자봉에는 연자방아처럼 생긴 희한한 바위가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만든다. 서희봉 곁에는 '장군바위'가 이름처럼 우람하니, 위의威儀가 매섭다.



서희 장군 동상 우리 민족의 응혼한 기상을 여실하게 보여 준 선생의 눈빛은 아직도 형형하다

설봉산의 오솔길은 짧아도 아름답기에, 역시 행복한 마음으로 두벅두벅 걸어야 한다. 법정法頂스님도 『홀로 사는 즐거움』이란 책의 「걷기 예찬」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걷는다는 것은 침묵을 횡단하는 것이다. 걷는 사람은 시끄러운 소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세상 밖으로 외출하는 것이다. 걷는 사람은 끊임없이 근원적인 질문에 직면한다.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누구인가?” 이 산하대지는 자동차의 타이어를 위해서보다는 우리의 두 발을 위해서 예부터 있어 온 것임을 알아야 한다. 자연 속에는 미묘한 자력이 있어 우리가 무심히 거기에 몸을 맡기면 그 자력이 올바른 길을 인도해 준다고 옛 수행자들은 믿었다. 자동차에 의존하지 않고 두 발로 두벅두벅 걷는 사람만이 그 오묘한 자연의 정기를 받을 수 있다.

무욕의 바람이 불어와 땀을 씻어 준다. 자연이 주는 청량산淸凉山이다. 능선은 부학봉浮鶴峰근처에서 하산길로 갈라진다. 영월암을 거쳐 삼형제바위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다. 영월암은 능선 바로 아래에 터를 펼쳤다.



연자바위 보는 이의 고개를 저절로 끄덕이게 만드는 자연의 산물이다

다음 주는 “누구나 함께하는” <설봉산 영월암> 세 번째 이야기 “영월암과 나옹화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 후원사업 안내

★ “닥터프란체스코 마유(馬油) 제품” 안내

우리 연구원 회원이며 독일에서 활동하는 김진경 회원이 독일현지에서 마유 원액을 직접 생산하여 한국 화장품업계에 공급하여 왔는데 우리 연구원의 운영을 돕고자 시중 보다 높은 함량의 마스크 팩을 생산하여 유통과정 없이 회원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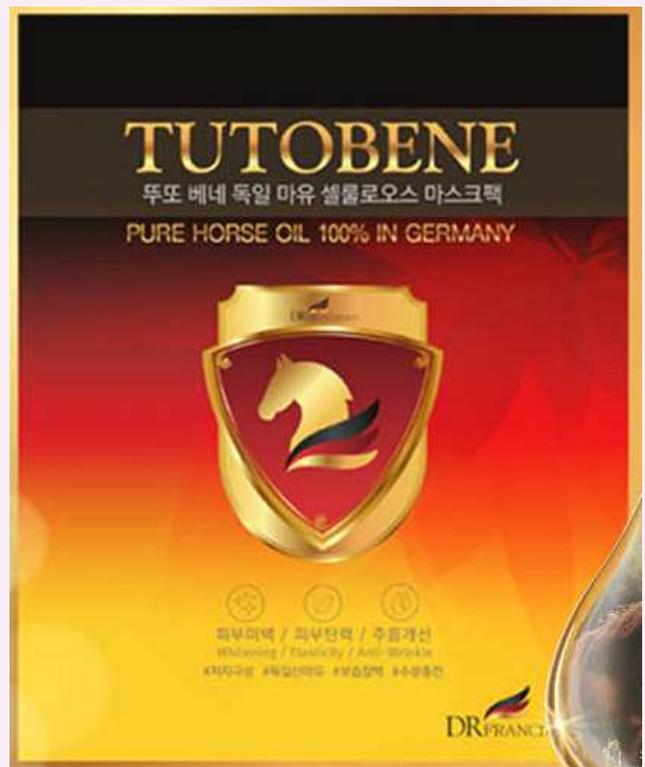
마유는 그 어떤 원료보다 안정성 있게 피부 개선에 도움을 주며 아토피 피부나 피부 트러블에도 효과적입니다!

◎ 마유 팩 효능

- 피부 밸런스를 맞추어 건강한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
- 피부 노화 및 유해 환경(공해, 자외선, 담배연기 등)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줍니다.
- 눈에 띄게 맑고 빛나는 피부톤으로 가꿔주고, 탄력을 높여줍니다.



< 마유팩 25g * 5매 >



< 마유팩 30g * 5매 >

◇ 시 중 가 : 1만 5천 원
◇ 연구원 판매가 : 1만 원

◇ 시 중 가 : 4만 5천 원
◇ 연구원 판매가 : 2만 원

◎ **마유 샴푸 및 바디워시 효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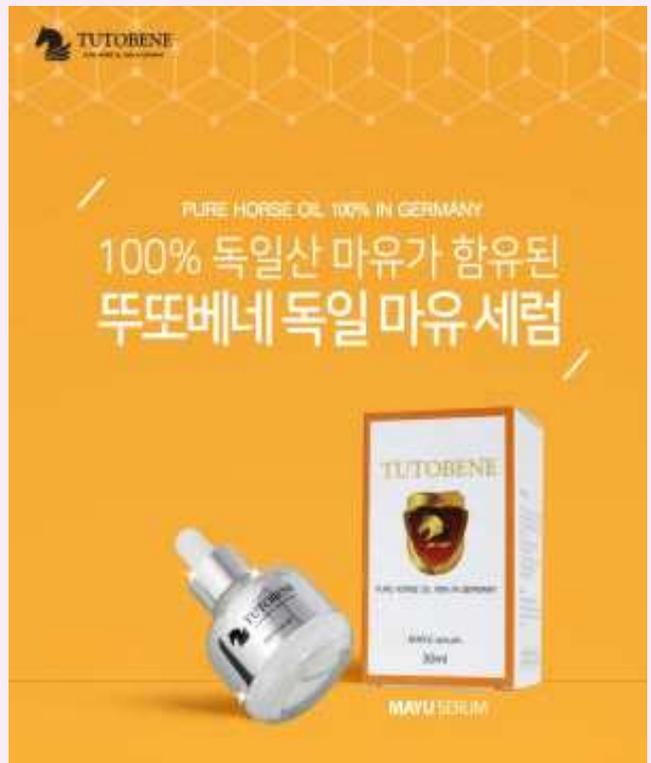
- 가려움 예방 및 피부 각질제거
- 두피관리 및 머릿결에 영양 공급
- 피부 활력 및 보습진정 효과

◎ **마유 세럼 효능**

- 피부 수분 및 영양 공급
- 고운 피부결과 화사한 피부톤 지원



< 마유샴푸 및 마유 바디 워시 >



< 마유 세럼 >

◇ 시 중 가 : 2만 9천 원
 ◇ 연구원 판매가 : 1만원

◇ 시 중 가 : 6만 9천 원
 ◇ 연구원 판매가 : 3만원

◎ 시중가는 현재 인터넷에서 거래되는 가격이나 연구원을 통해 구입하시면 저렴한 가격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제품 구매 수익은 전액 연구원에 기부됩니다. 좋은 기운을 나누는데 사용하시는 기분 좋은 소비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